

소통의 '광주 폴리 III'

광주 '폴리(Folly) III'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폴리가 스타마케팅에 의존하면서 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작가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이하 재단)은 내년까지 모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폴리III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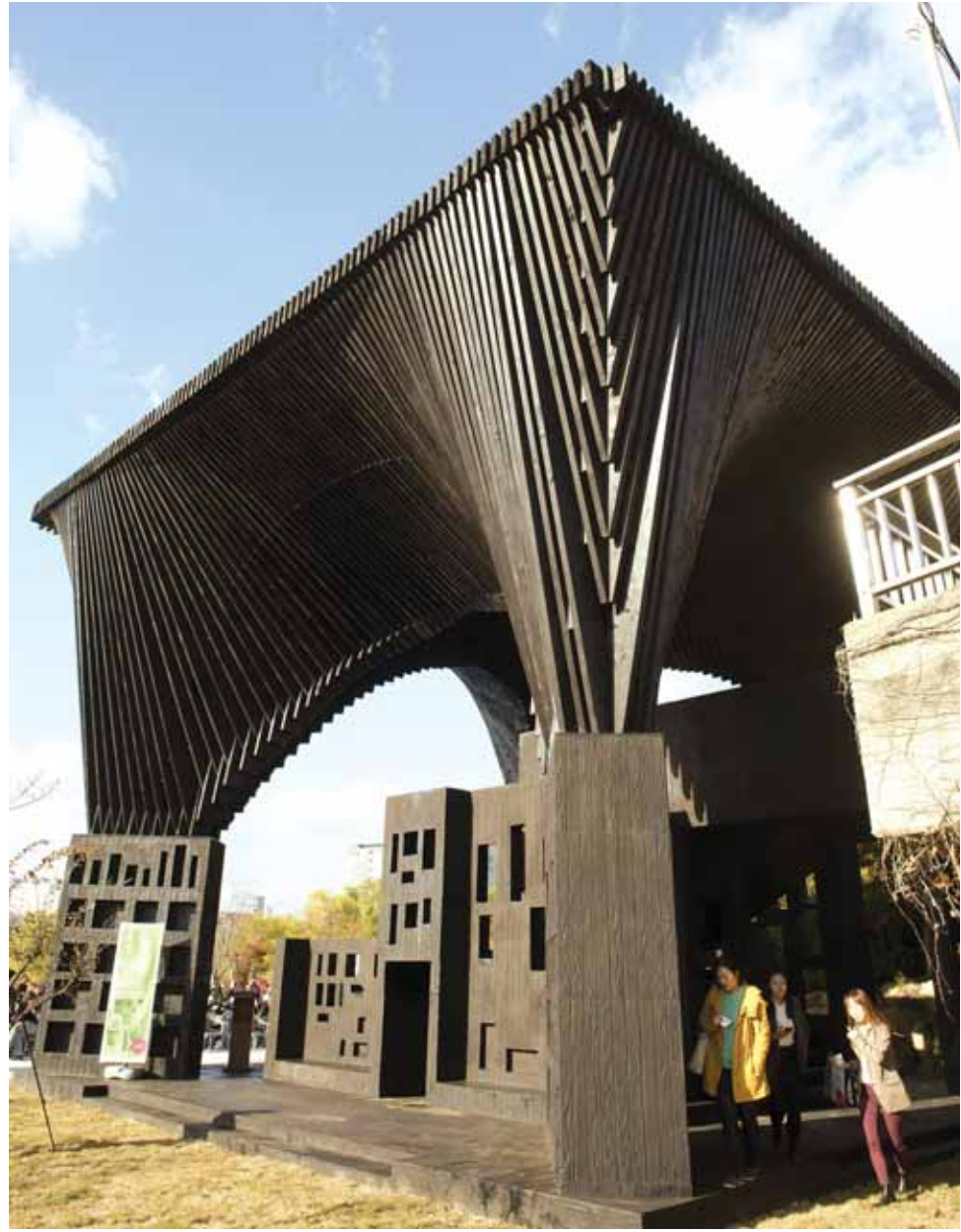
재단은 올해 1차적으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가 선정과 작품 이미지 컨셉 작업을 마치고, 내년에 설계와 설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작가 선정은 오는 2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폴리II 준공을 앞두고

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작품별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 것은 폴리 사업이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 등을 꾸려 소통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세스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과 공공 공간'이라는 주제의 무게로 인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장소 선정보다는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주제, 작가, 장소 선정과 함께 제작 및 설치 등 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도심 속 폐허로



광주 폴리 II '광주천 독서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장소를 정하고 스타 건축가가 설계하는 시스템 도입이나 탐구자의 전철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의 테마버스(518번, 419번)도 작품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앞으로 추진될) 폴리가 전체 개념(주제)에 묶이면 도시와 공공공간을 읽어내는 작가의 다양성과 자유로

움을 제한하고, 스스로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광주 폴리는 도심 재생과 문화·디자인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011년 첫 선을 보였던 폴리 I 11개 작품에 이어 지난해 11월 폴리 II 8개 작품이 완공되면서 모두 19개 작품이 광주 도심을 수놓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내년까지 25억 투입 추진 2월까지 참여작가 선정...전 과정에 시민 참여 도심 속 폐허·유희지 활용 도심재생 제안도

꾸러진 광주폴리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그동안 폴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해결책을 바탕으로 폴리III 추진 계획을 설계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조만간 '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폴리III는 시민협의회의 회를 구성점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전과 달리 작품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작품이 연구물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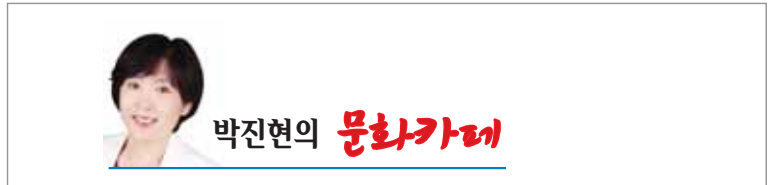
지난해 평가단은 폴리II는 폴리 I 과 달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성도가 높았고, 사용성과 조형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폴리II 기획단

방치된 지역과 유희지를 활용해 도심재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폴리평가단이 추천한 전문 위원들도 새로운 시각의 평가를 내렸다.

주홍 작가는 "광주공원에 설치된 유네스코 화장실 작품은 호기심을 자아내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큰 과제를 남겼다"는 의견과 함께 "광주천 독서실에서 비정기적이라도 책과 관련된 바자회 등 행사가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네스코 화장실은 광주공원 포장마차 취객들로 인해 밤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재단은 폴리 옆에 간이 공공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현의 문화카레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분명 몇 시간 전에 봤던 건물과 거리이지만 마치 낯선 도시를 걷는 여행자 처럼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다. 지난해 연말 관람한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감독 리처드 커티스)은 나에게 새삼 '일상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되던 날 아버지로 부터 집안 남자들의 특별한 능력에 관한 비밀을 듣는다. 마음만 먹으면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장롱과 같은 어두운 곳에

사이에 왕창 끼치고 업무에 쫓긴 나머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로 점심을 때운다. 짜증의 연속이었던 그의 하루는 퇴근길에도 이어진다. 지하철에서 시끄러운 록 음악을 듣는 옆자리의 남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채 귀가한 그는 물먹은 솜처럼 침대 위로 쓰러진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맞이하는' 그의 하루는 전혀 다르다. 지난 일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팀은 첫 번째 날 깨닫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찾는다. 뒷사람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던 후배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네고, 지하철 옆 좌

당신의 '어바웃 타임'을 위하여

들어간 양 주먹을 쥐고 간절히 원하는 "그때"를 떠올리면 되돌아갈 수 있다. 고수였던 아버지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평소 좋아하는 책을 한 번 더 읽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팀은 조금 달랐다. 애인이 없어 고민이었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랑'에만 쏟아 붓는다. 학창시절의 첫사랑을 만났던 파티장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가 '달달한' 시간을 보낸다. 소중한 능력을 연애에만만 허비하는 아들을 안타까워하던 아버지는 '행복의 비밀공식'을 알려준다. "하루를 두 번씩 살아 보라". 처음엔 평소처럼 하루를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살아보는 것이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실천해본다. 첫 번째 하루는 피곤하고 우울한 날이다. 직장 상

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록 음악에는 손으로 기타 치는 흥내까지 난다.

갑오년 새해를 맞았다. 한해의 시작에 서 있는 우리의 앞에는 수많은 시간이 놓여 있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두 번씩 사는 재주가 없는 우리로서는 재연이 불가능한 '지금, 이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나가 중요하다. 올해는 자심삼일에 그칠 거창한 새해 설레보다 숨겨진 일상의 시간을 즐기는 데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보면 적어도 후회없는 2014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여행이다. 매일 매일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어바웃 타임' 중에서)

(편집국장·문화심리기자)

"이 천사를 안아주세요"

조세현 작가 제공

미혼모 돕기 사랑의 사진전, 9~15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기천사들과 사진작가 조세현씨의 작은 인연이 11년째를 맞았다. 대한사회복지회는 9~15일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입양아와 미혼모를 위한 사랑의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 11th-순수'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영아들과 2PM, 2AM, 씨스타, 제국의 아이들, 카라, 포미닛, B1A4 등 유명 아이돌 그룹과 장애아동 등을 모델로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조세현씨는 순수한 입양대상 아들이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 주제를 '순수'로 정했다.

천사들의 편지는 지난 2003년 대한사회복지사와 조세현씨가 입양대상아동들의 백일사진을 계기로 인연을 맺으면서 시작된 입양문화 캠페인 사진전이다. 지난 10년간 비, 이병현, 김정은, 김혜수, 고소영, 박병, 윤은혜, 유승호, 장근석, 이승기, 최경주, 정명훈 등 100여명이 넘는 스타와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전시 기간 갤러리에서는 스타들과 아기들의 사진이 담긴 캘린더와 다이어리, 포스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아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국내입양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시 작품들은 홈페이지(<http://gallery.lovefund.or.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loveinsws, www.facebook.com/seihon)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신세계와 엔지티브가 후원한다. 문의 062-360-1271(광주 신세계갤러리), 062-222-9349(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13일부터 새해 첫 전시회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용자)이 재단 북카페에서 2014년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2월1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는 생활공예 전시로 일회성 작가의 손뜨개 작품과 수공예발견협회 회원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손뜨개를 이용한 생활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모두 20명을 모집하며 신청서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http://www.gjwf.or.kr>, 문의 062-670-05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드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p>디지털tv 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p>	<p>인터넷 국내 최고 가파른 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방송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p>	<p>전화 품질은 그대로, 요금은 절반! 달콤한 장인제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p>
----------------------------------------------------------------------------------------	-----------------------------------------------------------------------------------	--------------------------------------------------------------------------------

2.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할리데이 선물! 원하는 채널만 선택하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골프(스모스틱)	골프중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크팩	NBS ADVENTURE, Discovery	3,000원 (VAT 포함 3,3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S	3,000원 (VAT 포함 3,3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VAT 포함 3,3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te	3,000원 (VAT 포함 3,300원)

가입문의 **1855-1008** www.cjhellotv.com